



National Museum of Korean Democracy

민주화운동기념관

한국어



**민주화운동기념관은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조성된 공간으로,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전시·기록·교육
공간과 민주광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존 건축물과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 연결되어 방문객이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이곳은 전시와 교육, 참여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성찰하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미래의 가치를 이어가는
장소이다.**

공간 안내

① M1기념관

② M2 기념관(옛남영동대공분실)

③ E 교육동

④ 민주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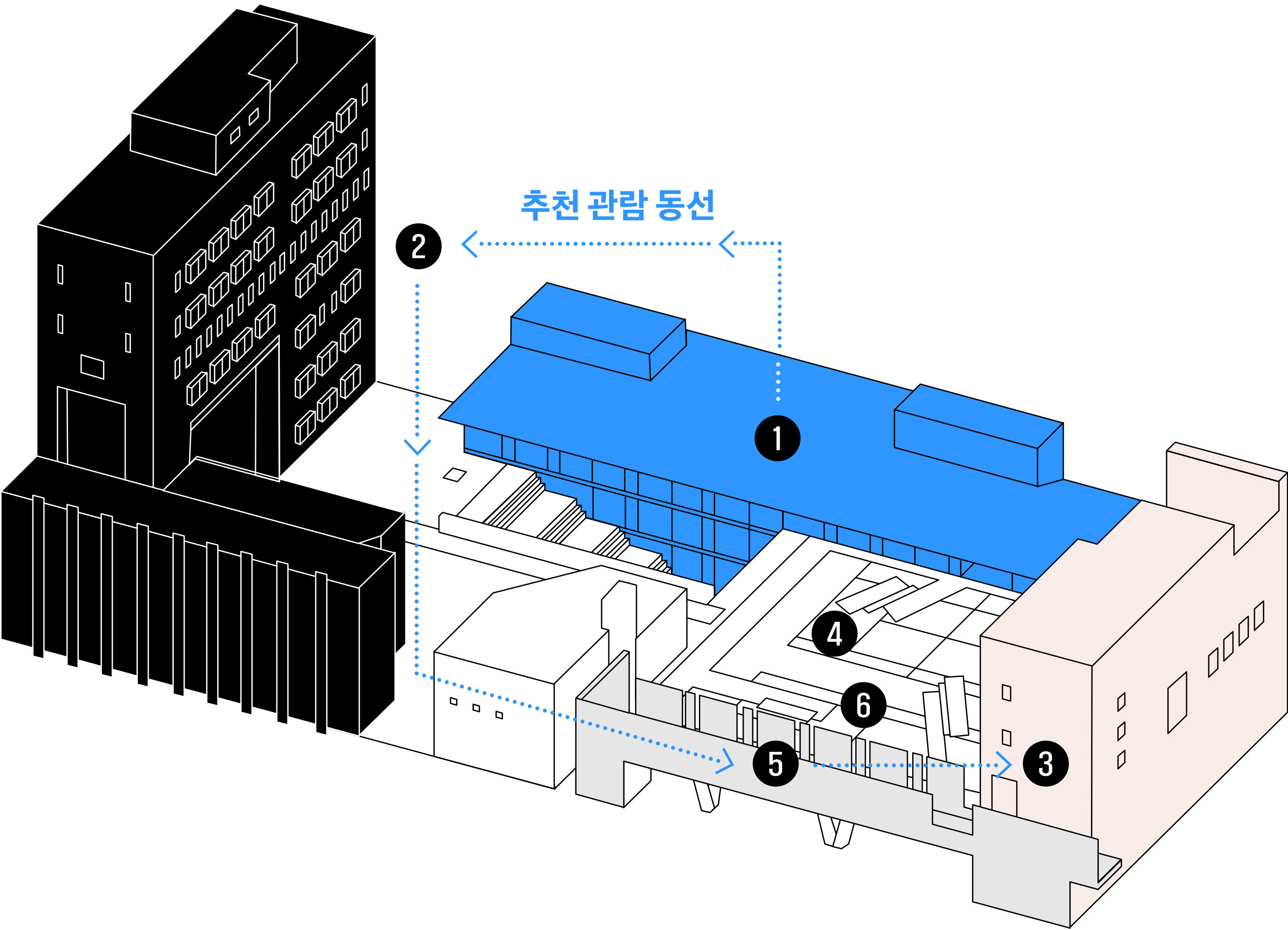
옛 테니스장 부지에 조성된 열린 공간으로, 천창을 통해 지하 전시장에 빛을 연결한다.

⑤ 치유의 길

대공분실의 수직 창 형태를 반영해 장소의 역사적 기억을 표현한 공간이다.

⑥ 열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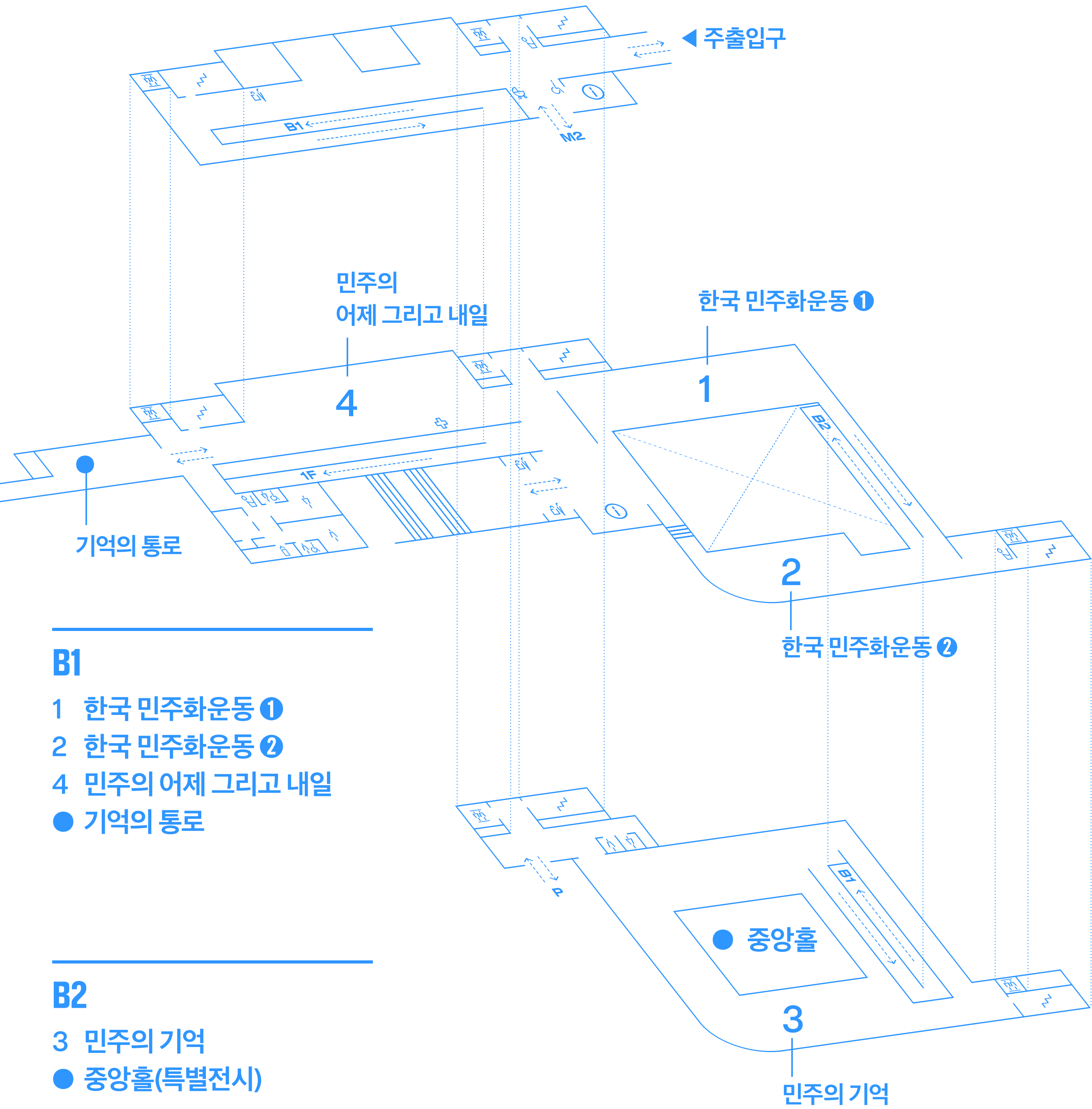
옛 대공분실 철문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다.



- ① 안내
- ㉠ 승강기
- ㄱ 계단실
- P 주차장
- 입 음수대
- ↑ 여자화장실
- ↕ 장애인 여자화장실
- ↓ 남자화장실
- ↕ 장애인 남자화장실
- ㉡ 물품보관함
- ⛑ 의무실
- ♿ 휠체어 대여
- 🛒 유아차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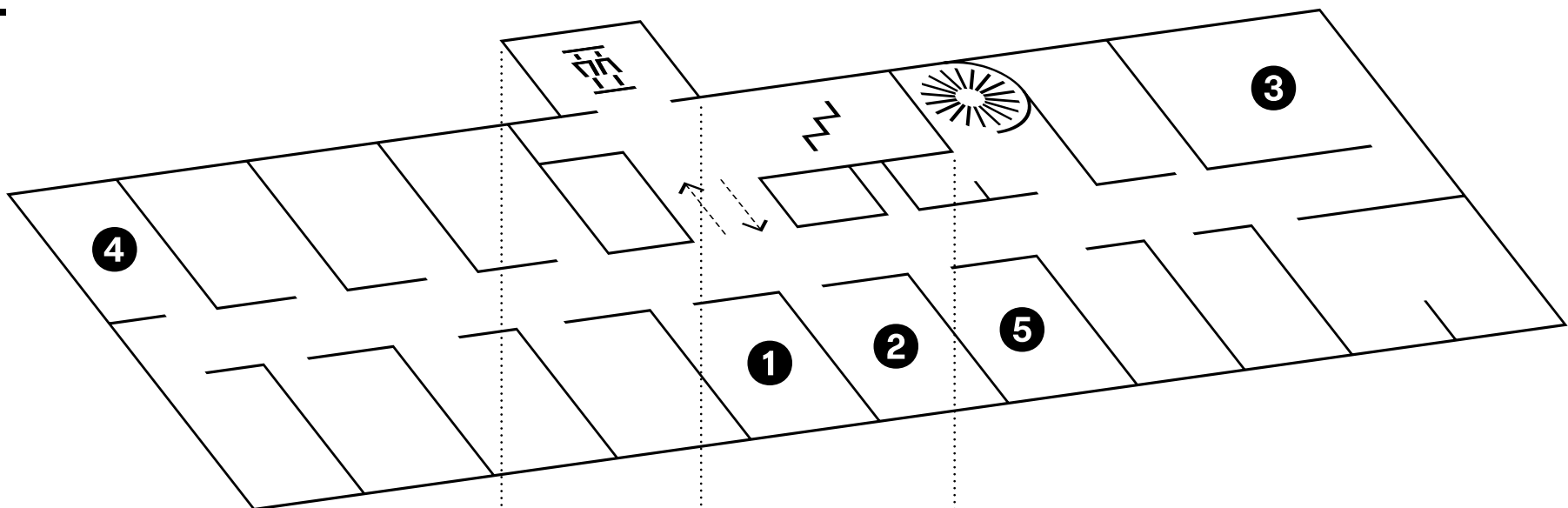
1F

◀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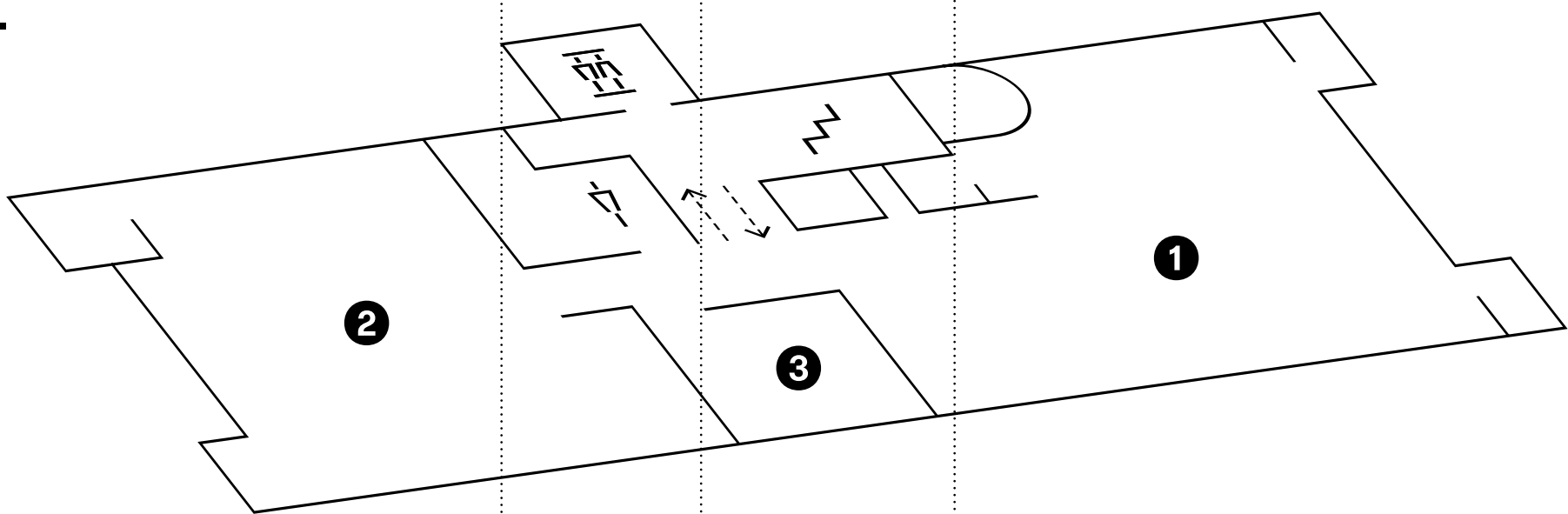
5F 조사실

- ① 509호(박종철 조사실)
- ② 510호(마이크방)
- ③ 515호
- ④ 504호(빨간방)
- ⑤ 511호(노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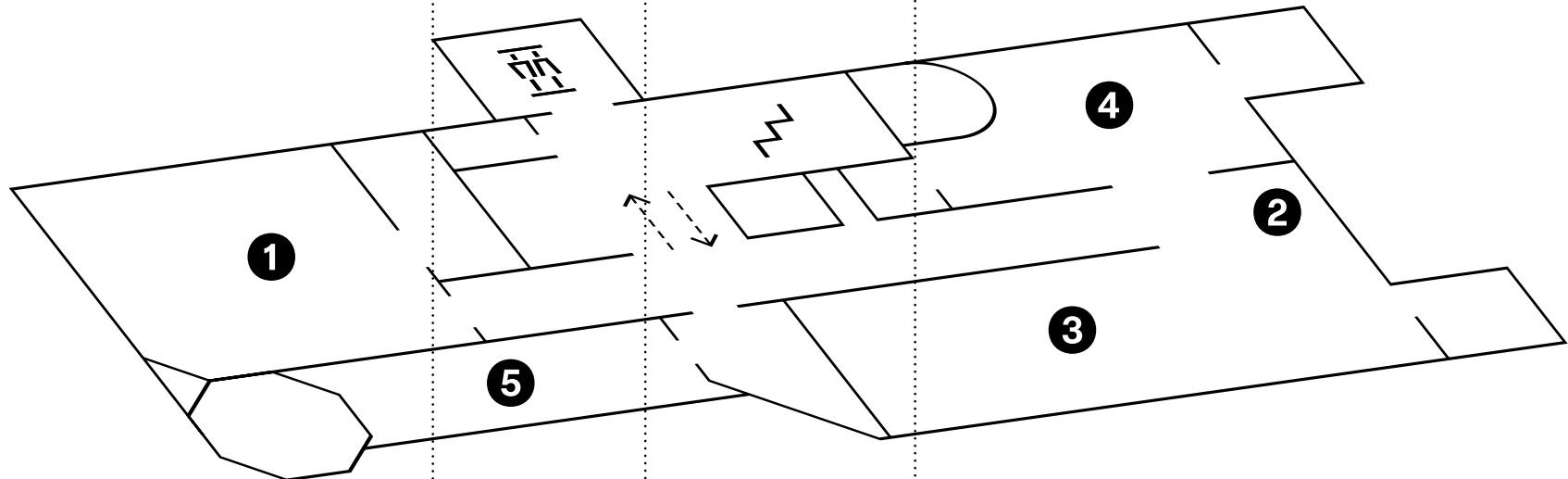
4F 일어서는 사람들

- ① 보통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 ② 스물 두살의 철이와 1987
- ③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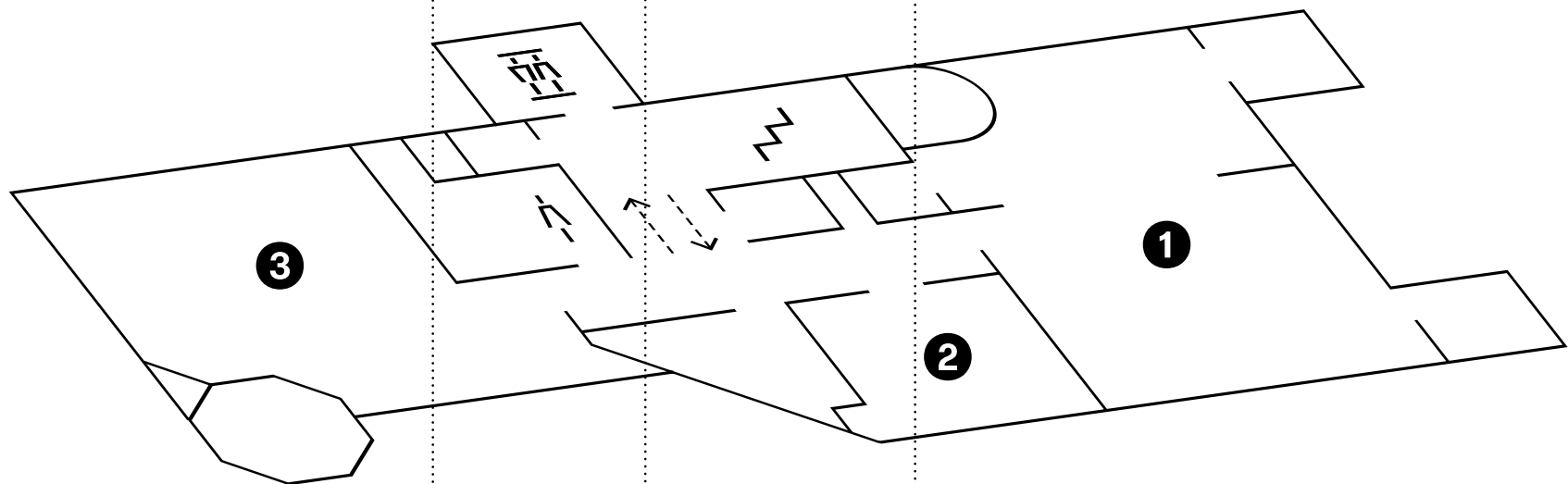
3F 국가폭력의 가해자

- ① 장막 뒤의 목소리
- ② 보이지 않는 눈(CCTV)
- ③ 대공부서
- ④ 검은 벽돌의 비밀
- ⑤ 반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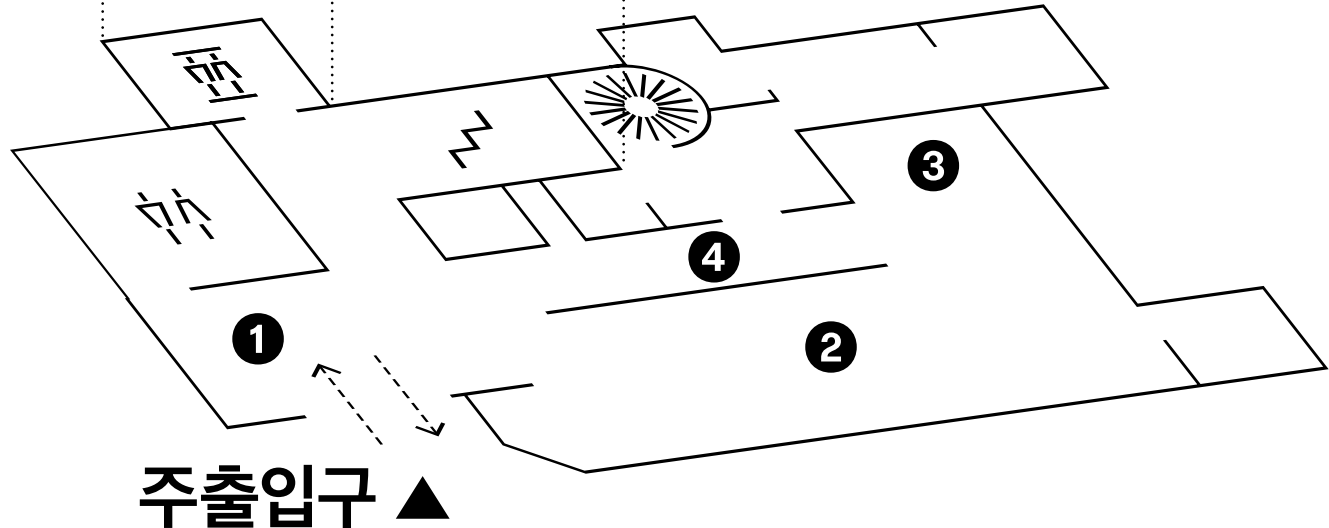
2F 조작된 장면

- ① 무너진 일상
- ② 잃어버린 시간
- ③ 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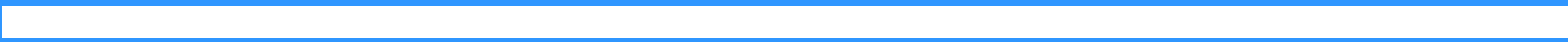


1F 그날의 기억

- ①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② 1987년, 나와 너의 기억
- ③ 장면 너머
- ④ 그날이 오면
- ▲ 주출입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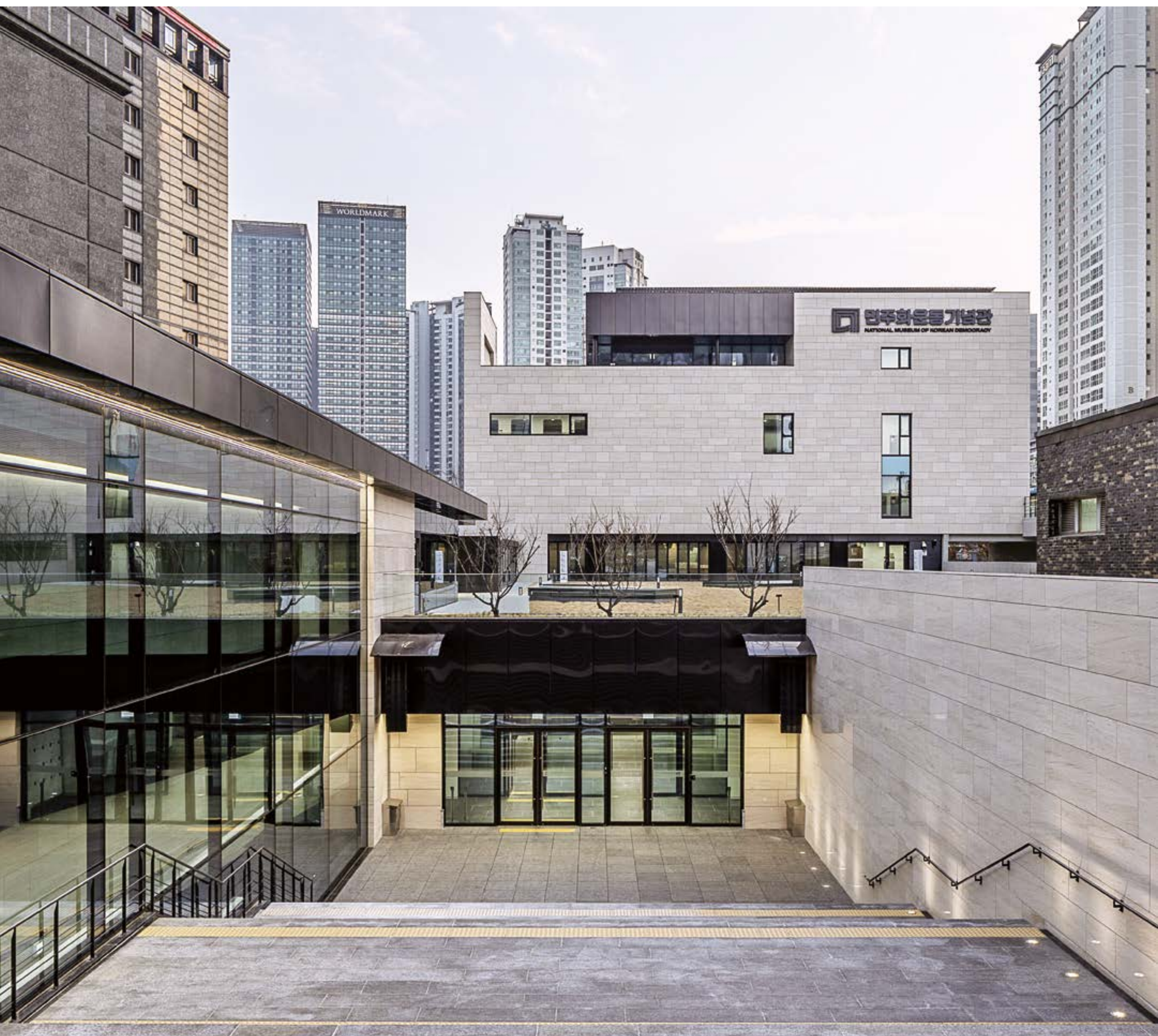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된 공간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시와 체험 콘텐츠로 소개한다. 상설전과 특별전, 참여형 미디어 전시를 통해 관람객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한국 민주화운동 ①

한국 민주화운동①에서는 국가 법정 기념일을 포함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11개의 민주화운동사를 다룬다. 이승만-박정희(유신)-전두환(신군부) 정권기 동안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시대순으로 만나볼 수 있다.

1960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 4·19혁명



1960
2·28민주운동



1960
3·8민주의거



1960
3·15의거



1960
4·19혁명

1964-1979 유신체제에 맞선 끊임없는 저항



1969
삼선개헌 반대운동



1964
6·3한일회담
반대운동



1979
부마민주항쟁



1980
5.18민주화운동

1983-1987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분수령, 6·10민주항쟁



1987
6·10민주항쟁



1974
유신헌법 반대운동

1980

아! 광주여, 우리들의 민주주의여!



1986
인천5.3민주항쟁

M1 전시 관람 포인트 : 특별도슨트
한국 민주화운동 ❶, ❷에서 진행되는
특별도슨트는 역동적인 그래픽과 안무가의
몸짓을 통해, 관람객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한다.

→ 영상 보기 Click

한국 민주화운동 ②

한국 민주화운동②에서는 학생, 재야·종교·국제연대, 노동, 농민·빈민, 언론·교육·문화, 여성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을 다룬다.

민주화운동의 깃발, 학생



1960
제2차 마산의거 당시 여학생들의 시위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

사회경제적 평등을 향해, 노동



1985
구사대의 폭행으로 온몸에 멍이 든 선일섬유 노동자

제도권 밖의 외침, 재야·종교·국제연대



1986
명동성당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재야인사들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

생존권 투쟁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농민·빈민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향한 여정, 여성



1987
노조결성 인정 등을 요구하며
유니폼을 입은 채 연좌 농성 중인
롯데쇼핑 노동자들



1988
고추포대를 뒤에 두고 민정당사 앞에서
연좌 시위하는 경북 봉화의 농민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향하여,
언론·교육·문화 운동



1989
구속 문인 출판인 석방 촉구 거리 시위를 벌이는
민족문학작가회의의 회원들

민주의 기억

30개의 터치형 LCD모니터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담긴 장소, 사물, 노래에 관한 영상을 관람자가 직접 선택하여 만나볼 수 있다. 각각의 요소에 담긴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장소의 기억

- 1. 명동성당
- 2. 세실레스토랑
- 3. 종로5가 기독교회관
- 4. 고등학교
- 5. 대학교
- 6. 마산항 중앙부두
- 7. 산업선교회, 야학
- 8. 동일방직, YH무역
- 9. 전일빌딩
- 10. 원각사
- 11. 판잣집
- 12. 서울역
- 13. 천주교 원주교구
- 14. 광장
- 15. 아지트
- 16. 탄광
- 17. 원풍모방 노동조합
- 18. 평화시장

사물의 기억

- 1. 택시
- 2. 투표용지
- 3. 빅토리솔
- 4. 넥타이
- 5. 대자보
- 6. 불나비
- 7. 유인물, 플랜카드
- 8. 태극기
- 9. 가리방 등사기
- 10. 운동화
- 11. 고구마, 감자
- 12. 꽃
- 13. 카메라와 테이프

노래의 기억

- 1. 친구
- 2. 아침이슬
- 3. 상록수
- 4. 이 세상 어딘가에
- 5. 작은 연못
- 6. 천리길
- 7. 불나비
- 8. 임을 위한 행진곡
- 9. 벗이여 해방이 온다
- 10.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11. 사계
- 12. 그날이 오면
- 13.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 14. 노동의 새벽
- 15. 술아 푸르른 술아
- 16. 광야에서
- 17.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 18.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19. 전화카드 한 장
- 20. 희망의 노래

민주의 어제 그리고 내일

20세기를 살아온 역사적 인물의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탐구하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람객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고 있다.





기억의 벽

이 벽에는 2001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인정된 13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억의 통로

Passage of Memory

전영일, 2024

옛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결되는 통로에 설치된 이 작품은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400여 명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징한다.

모든 국민이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
군사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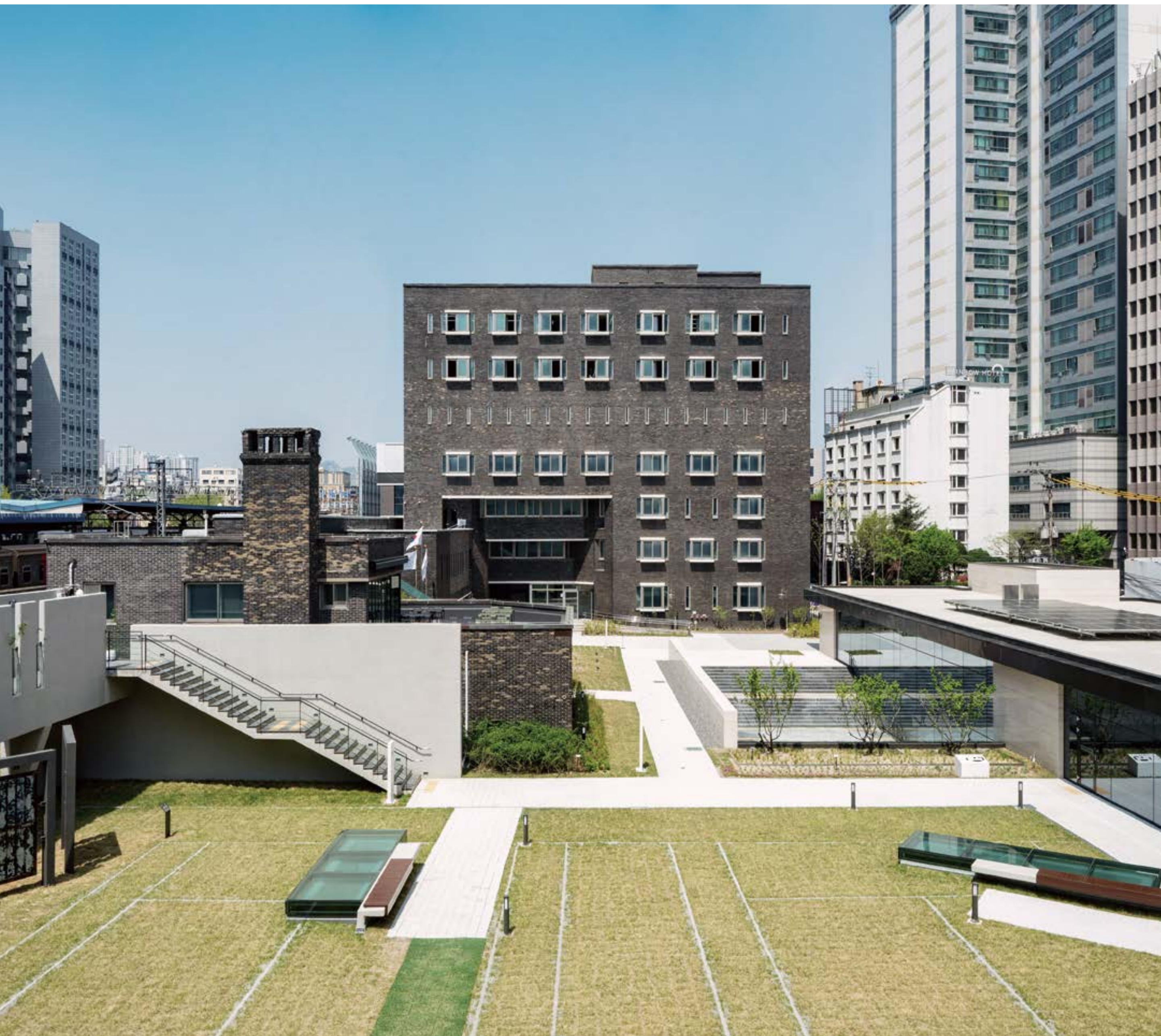
대한민국헌법 제12조 2항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보존·활용한 공간으로,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조사실과 전시 공간을 따라 국가폭력의 현장을 마주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성찰하도록 구성하였다.

M2 전시 관람 포인트 : 사운드 스케이프

M2 공간 곳곳에 설치된 204개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다양한 층위의 소리는 당시의 분위기와 기억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 자세히 보기 Click





5F 조사실

- ① 조사실 복도
- ② 510호(마이크방)
- ③ 509호(박종철 조사실)
- ④ 515호
- ⑤ 504호(빨간방)
- ⑥ 511호(노란방)



4F 일어서는 사람들

- ① 보통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 ② 증언
- ③ 스물 두 살의 철이와 1987



3F 국가폭력의 가해자

- ① 장막 뒤의 목소리
- ② 대공부서
- ③ 반장실
- ④ 보이지 않는 눈(CCTV)
- ⑤ 검은 벽돌의 비밀



2F 조작된 장면

- ① 무너진 일상
- ② 사건들
- ③ 잃어버린 시간



1F 그날의 기억

- 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 ② 장면너머
- ③ 1987년, 나와 너의 기억
- ④ 그날이 오면

그날의 기억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은 국가 안보를 구실 삼아 통치와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정치적 고비마다 간첩 혹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였고,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한 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감시와 처벌이 일상화된 시대였다. 하지만 암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5F



4F



3F

❶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지난 시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물리적 통제 수단을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군대나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현 국가정보원)와 같은 정보 기구는 물론,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던 경찰마저도 철저히 헌법을 무시했다.

2F

❷ 1987년, 나와 너의 기억
1970-80년대 대한민국은 통제와 억압이 일상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1987년, 통제와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영상을 통해 1987년의 그들이 오늘의 나와 만나 우리가 된다.

❸ 장면 너머
군사독재 시절, 간첩은 분명 실재했다. 당시 뉴스에서는 ‘북괴’, ‘고정간첩단’, ‘반국가단체’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간첩행위를 알렸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재판을 통해, 고문에 의해 많은 사건들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F

❹ 그날이 오면
1987년 6월 10일은, 숨죽여 지내온 세월을 딛고 정의가 실현되길 부르짖던 날이었다.

조작된 장면

군사독재정권은 국가의 안녕과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공공연히 간첩 수사를 했다. 독재정권에 충성하는 부역자들은 대공 수사 전담 조직을 꾸려 무분별한 성과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었다. 이렇게 자행된 결과는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잡은 간첩’보다 ‘만들어 낸 간첩’이 더욱 많았다.

5F



4F



3F

2F

❶ 무너진 일상
군사정권 시절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도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는 것이 가능했다. <삼척고정간첩단 사건>과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청련) 사건>을 통해, 지난한 진실규명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상처를 되돌아본다.

1F

❷ 잃어버린 시간
시침과 초침이 움직이지 않는 시계를 통해, 과거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피해자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표현했다.

❸ 사건들
독재정권은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내세워 많은 간첩 사건을 만들어냈다. 고문과 가혹행위 및 강제 연행, 불법 구금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 사건의 진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졌고 국가배상이 진행 중이다.

국가폭력의 가해자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했던 국가 체계 아래 있던 가해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 경찰과 검찰 등의 정보수사기관을 통해 대공 수사는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민주화 이후 여러 증언으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과거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5F



4F

❶ 장막 뒤의 목소리
고문과 조작의 최일선에서 일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철저하게 개인 신분이 가려져 있었다. 독재정권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비인간적인 감시와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은 아직도 진정한 반성이 없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에서 행해진 구체적인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3F

❷ 보이지 않는 눈(CCTV)
피조사자들은 엄격한 감시를 받았다. 조사실에는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기록되고 있었다.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대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인격적 파멸로 몰고 가려는 고도의 압박 전술이었다.

❸ 대공부서
해방 이후 가장 먼저 정보기관을 설립한 것은 군대와 경찰 조직이었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정보를 전담하는 중앙정보부가 설치되었다. 독재가 길어질수록 각각의 대공부서는 강화되고 확장되었다. ‘조직’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온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했다.

❹ 검은 벽돌의 비밀
대공분실은 ‘대공 수사’라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치밀한 설계로 지어졌다. 오로지 감시와 조사, 물리적 고문에 최적화된 설계와 배치로 이루어졌다.

❺ 반장실
반장실은 야외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다. 설계도에는 안락한 소파 4개와 침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자신들의 일상은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빼앗은 같은 시대를 전혀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2F

1F

일어서는 사람들

오래도록 베일에 싸여 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1987년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박종철을 비롯해 6·10민주항쟁의 기록과, 암흑했던 시절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5F

4F

3F



2F

1F

❶ 보통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국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사람들은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픔의 세월에도 삶을 꽃피우고 꿈을 품었다. 때로는 동지들이, 때로는 평범한 사물들이 회복을 위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❷ 스물 두살의 철이와 1987
1987년 1월 14일에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직선제로의 헌법개정과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이후 대한민국은 오랜 권위주의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을 이루었다.

❸ 증언
대공분실을 비롯하여 당시 국가폭력 기관에서 자행된 고문과 억압은 수많은 피해자의 구술 인터뷰와 진술을 통하여 밝혀졌다. 피해자들이 겪은 당시의 참상과 고통, 그리고 떨쳐낼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을 같이 지켜본다.

5층 조사실,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운영된 각 기관의 조사실 중 유일하게 현장이 보존된 곳이다. 통상 지하에 있었던 여타 정보기관들의 조사실들과 달리 지상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15개의 조사실(건축 당시 18개) 각각의 문 위에는 층수 없이 호수만 작게 표시되어 있다. 1970년대에 지어졌다고는 상상하기 힘든 정교한 시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5F

4F

3F



5층 조사실
5층에는 15개의 조사실이 있고 모든 출입문은 맞은편에서 서로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변기와 세면대, 욕조
조사실 내부에는 욕조, 세면대, 변기가 놓여져 있다. 이 공간은 조사 공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감시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었다.

외시경
문마다 설치되어 있는 작은 렌즈는 밖에서 안을 감시하는 용도였다. 수사관들이 조사실 내에 갇혀있는 조사대상자들의 상태를 감시하도록 만들어졌다.

조사실 복도 조광기
조사실 복도에 있는 조광기를 통해 조명의 전원은 물론 밝기까지 조절되었다. 조사실에 갇힌 피해자들은 시간의 흐름을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1F

5F

4F

3F

2F

1F



좁은 창문

5층 조사실 창문은 다른 층과 달리 좁고 긴 모양을 하고 있다. 고문을 받는 피해자의 탈출 혹은 자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건물 후면

연행자 출입구
건물 뒤편 창문은 전부 좁게 설계되어 외부에서도 내부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외부 쪽문은 연행자 전용 출입구로 작은 호송용 승강기와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나선형 계단

나선형 계단은 조사실이 있는 5층으로만 이어진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간 이들은 자신이 몇 층으로 가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철제 계단의 소리는 공포를 증폭시키고 원형 계단은 공간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철문

남영동 대공분실의 입구는 육중한 철문으로 되어있어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정문을 통과했다.



보이는 수장고: 오픈아카이브 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약 90여만 건의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에는 지하 2층 수장고와 지하 1층의 보이는 수장고를 조성하여 사료를 보존하고 있다. 오픈아카이브 창은 시청을 활용하여 주요 민주화운동 사료를 전시한다.

→ 웹사이트 Click
archives.kdemo.or.kr



기증자의 벽

기증자의 벽은 2001년부터 민주화운동 사료를 기증한
개인과 단체를 기록한 벽이다. 총 758명의 기증자가
기재되어 있다.(2024년 12월 31일 기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연대와 공론의 문화를 넓혀가고 있다.



4F 민주마루

민주마루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및 민주주의 관련 국내외 도서, 사진, 영상 전시 등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고 읽고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교육 프로그램

성인	청소년(중고등학생)
• 세계 민주주의의 날 기념 민주주의 강연회 • 기념관 시민강좌 • 교사연수 • 전문가 교육과정	•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 청소년 민주주의 프로그램 • 전시·교과 연계 프로그램 • 진로 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 탐방 프로그램
어린이(초등학생)·가족	접근성 향상 & 콘텐츠 보급
• 학급 단체·개인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 자기주도 프로그램	• 전시 해설 프로그램 • 장애인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 학교 민주주의 프로그램 • 민주화운동 계기교육자료·영상

→ 교육프로그램 신청하기 Click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국회에서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2007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주요 사업
- 민주화운동기념관 운영
 -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운영
 - 민주화운동 기념·교류
 - 민주주의교육 운영
 - 사료수집 및 관리
 - 학술연구
 - 국제협력

16029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T 031-361-9500
F 031-361-9576

→ 웹사이트 Click
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경기도 이천 소재의 민주화운동기념공원(2016년 6월 개원)을 2023년부터 위탁 관리하여 묘역 관리 및 합동추모제 개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 사업
- 민주열사 추모사업
 - 민주화운동 전시 기획 및 운영
 -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람시간
하절기(3~10월): 09:30~17:30
동절기(11~2월): 10: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관
단, 전시관 외 묘역,
민주광장 등 야외공간은
연중무휴(09:00~18:00)
무료 관람

17406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30
T 031-8011-9710
F 031-8011-9709

→ 웹사이트 Click
minjupark.or.kr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 추석 당일

관람료

무료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

4호선 숙대입구역 7번 출구

6호선 삼각지역 10번 출구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02-6440-8900